

쑥쑥 크는 여수 사회적기업 성공 궤도 진입

전년비 26곳 늘어 123개 ... 잇단 수상에 매출도 꾸준히 증가
시, 맞춤형컨설팅·판로 지원 등 고용 창출·경제 활성화 기여

전남 제1의 도시 여수시가 사회적 기업 활성화로 경제 지표 상승은 물론 계층간 균형발전과 고용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수시에 따르면 10월 현재 여수지역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 27곳, 마을기업 24곳, 협동조합 64곳, 자활기업 8곳 등 123곳이다.

2017년 6월 대비 사회적기업 26곳이 늘어나면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23개 사회적기업 참여 수는 1400여 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기업매출이 2015년 91억 원, 2016년 131억 원, 2017년 122억 원으로 2016년부터 100억 원대를 유지하면서 높은 기업실적을 보였다.

이처럼 사회적기업 수 증가와 매출 상승이 증가하면서 지역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자연스럽게 높아지고 있다.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통한 다양한 성과

또한 수상실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마을기업 송시마을은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KBC가 주관한 2018년 좋은 이웃 밝은 동네 대상에 선정됐다.

사회적기업 '쿠키야'는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8년 우수 사회적기업상을 수상했다.

사회적 기업의 요람이 되고 있는 여수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방향은 크게 5가지다. 여수형 청년 사회적기업 발굴 지원과 사회적기업 육성, 마을기업 육성, 협동조합 육성,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 정책이다.

여수형 청년 사회적기업 발굴은 창업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들에게 창업비용과 교육, 멘토링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4개 창업단을 선발해 7900만원을 지원한다.

사회적기업 육성 정책으로 근로자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영업·마케팅·기획·회계 등 전문인력, 사업개발비를 지원중이다.

마을기업 육성을 위해 기업 운영 시설장



여수시는 사회적경제기업의 가장 큰 어려움인 판로개척을 위해 성장단계별 맞춤형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다.

비비, 사업개발비, 홍보마케팅비 등을 지원하며 협동조합은 조합원 교육·컨설팅, 생산제품 우선구매 등을 통해 실질적인 행정지원에 나서고 있다.

이밖에 공공기관 우선구매와 성장단계별 맞춤형 컨설팅, 사회적경제기업 한마당 행사 등 사회적 경제기업들이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전문 지원한다.

여수시 관계자는 "지난 2011년부터 경

제·고용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여수시 사회적 기업들이 더욱 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시 예산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균형발전과 고용창출 등 지역사회를 위한 실질적 경제유발 효과를 위해 우수한 사회적 경제기업을 적극 발굴·육성해 가겠다"고 밝혔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청년취업 등용문 테크니션 스쿨 10기 교육생 50명 모집

여수시는 청년취업 등용문으로 통하는 테크니션 스쿨 10기 교육생을 모집한다. 여수시에 따르면 10기 교육생은 50명으로 지난해 9기보다 5명이 늘었다. 원서는 11월 9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받는다.

지원자는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 병역(면제포함)을 마쳐야 하며, 올해 7월 28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지가 여수시로 되어 있어야 한다.

시는 1차 서류전형과 2차 영어, 일반상식, 일반화학 등 필기시험 및 인적성검사, 3차 면접을 거쳐 12월 20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10기 테크니션 스쿨 모집은 시 홈페이지나 교육지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선발된 인원은 내년 1월부터 9월까지 여수시 평생학습관에서 주 5일씩 교육받는다. 앞서 테크니션 스쿨은 지역 청년들이 여수국가산단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돕는 산업인력 양성 프로그램이다. 90%가 넘는 높은 취업률을 자랑하며 인기가 높다.

실제 1기부터 8기까지 수료생 277명 중 261명(94.2%)이 여수산단 대기업에 취업했고, 지난해 수료한 9기 교육생도 45명 중 35명이 LG화학, GS칼텍스 등 12개사에 입사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



전남생활체육대축전 여수시 대표단이 지난 27일 축전 폐막행사를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여수시 제공>

여수서 열린 전남생활체육대축전 성료

전국 대표 해양관광휴양도시 여수에서 개최된 제30회 전남생활체육대축전이 지난 27일 폐막했다.

함께뛰자 멋진여수, 꽃피우자 행복전남'을 구호로 이번 대회는 지난 25일부터 3일간 진남경기장 등에서 수영, 야구, 육상, 축구, 태권도 등 22개 종목으로 치러졌다.

여수시에 따르면 전남 22개 시·군 선수단 6000여명이 참가했고, 관람객 2만 1000여명 이상이 대회를 찾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번 대회는 엘리트 체육 선수들의 체전 못지않게 생활체육인들의 경기 수준이 높고 원활한 진행과 안전 대회로 참가 선수단과 관람객의 호평을 받았다.

대회 폐막식은 27일 오후 3시 진남경기장에서 열렸다. 종목별 1~3위, 개인별 1~3위, 우수종목단체, 참여상 등의 시상식이 이어졌다.

입장상 부문 최우수상은 영암, 우수상은 강진·해남, 장려상은 나주·영광·신안이 수상했다. 순천·광양·함평은 스포츠 7330상을 받았다. 대회는 차기 개최지인 영암

군에 전달됐다.

여수시는 이번 대회 개최를 앞두고 경기장, 도로 등 시설물을 정비하는 한편 대회 분위기 고조를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활동을 펼쳤다. 선수단과 관람객 방면에 대비해 음식점소 영업주 교육과 지도·점검을 하는 등 손님맞이 준비도 집중했다.

고재영 여수시부시장은 "이번 생활체육대축전은 22개 시·군 선수단과 응원단이 3일간 멋진 경기와 응원을 펼친 축제의 장이 됐다"며 "대회 진행에 최선을 다한 자원봉사자와 반갑게 손님을 맞아준 여수시민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

테마여행 10선 '남도바닷길' 키운다

전문해설사 등 본격 양성...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 육성

1500만 관광객이 여수시가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에 선정된 '남도바닷길' 관광 활성화를 위한 통합문화관광해설사와 마더코디네이터를 본격 양성한다.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은 전국 10개 권역을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로 육성하기 위한 정부(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의 국내여행 활성화 사업이다.

문화관광해설사는 여수, 순천, 보성, 광양을 잇는 남도바닷길의 문화와 삶을 소개하고 마더코디네이터는 지역 인문자원을 발굴해 관광 상품화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시는 남도바닷길을 소개할 통합문화관광해설사 40명(시군별 10명), 마더코디네이터 20명(시군별 5명)을 모집해 전문해설사로 양성한다는 방침이다.

여수시는 오는 31일까지 희망자를 모집하고 11월 5일부터 12월 10일까지 본격적인 양성교육을 들어간다. 모집 분야는 청암대학교 산학협력단(010-9955-9960), 이메일 mokjin1201@hanmail.net) 및 4개 시·군 관광부서로 하면 된다.

앞서 여수시는 지난 22일 제안서평가 위원회를 열고 청암대학교 산학협력단을 교육기관으로 선정했다. 교육을 수료한 관광해설사는 광역시 티투어 안내에 투입되고, 마더코디네이

터는 창작·창업 지원, 협동조합 결성 등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전문가로 활동하게 된다.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은 권역별 관광명소를 연계한 새로운 관광코스다.

여수·순천·보성·광양은 문화부와 한국관광공사 주관 테마여행 10선에 연안바다의 풍광과 남도의 풍류를 느낄 수 있는 남도바닷길로 공식 선정됐다.

4개 지자체는 현재 남도바닷길 활성화를 위한 관광포럼과 관광콘텐츠 개발, 광역 테마버스 운영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여수시는 자체적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시비 31억5000만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시는 오는 2021년까지 남도바닷길 코스 이미지텔링과 환경 개선사업, 남도살이 체험마을 정비, 여수만 해넘이전망대 정비, 여문지구 이벤트 공간 정비 사업 등을 모두 끝낼 계획이다.

고재영 여수시 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은 "남도바닷길은 아름다운 여수바다 절경 등 남도의 풍경과 멋을 한 눈에 즐길 수 있는 멋진 코스로 이뤄졌다"며 "남도바닷길 알리기와 활성화를 앞장설 관광해설사와 마더코디네이터 모집에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바란다"고 밝혔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

공영자전거 안전하게 타세요... 345대 안전모 비치

여수시는 지난달부터 시행된 자전거 안전모 착용 의무화에 따라 시민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공영자전거 345대 전체에 안전모를 비치했다. <사진> 이번엔 비치한 안전모는 충격을 잘 흡수하고 내구성이 뛰어난 내충격용 스티로폼 재질로 만들어졌다.



여수시의 상징인 파란색 바탕에 여수 공영자전거 로고를 삽입하고 야간에도 이용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고화도 반사지도 부착했다.

위생 우려가 있는 안전모 내피는 탈부착 방식으로 제작해 주기적으로 교체할 계획이다.

자전거 안전모 착용은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에 따라 지난해 28일부터 의무화됐다. 의무화가 적용되는 곳은 자전거도로와 도로법에 따른 도로다.

많은 여수시민들이 이용하는 전라선 옛 기차길 공원도 자전거도로가 있으므로 안전모 착용 후 자전거를 즐겨야 한

다. 여수시 관계자는 "시민안전을 위해 자전거 안전모를 비치했다"며 "공영자전거 사용 시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하고 자전거 이용 후에는 자전거바구니에 거처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여수시는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해 자전거 안전모 비치 외에도 자전거도로 개선, 안전한 자전거 타기 홍보, 자전거 캠페인 등을 펼치고 있다. 11~12월에는 자전거동호회와 함께 자전거 안전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

착한보청기협동조합

보청기

70~50% 할인 이벤트

"불만족시 1달 안에 100% 환불"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윙윙~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 655-6544 산수오거리지점
062) 362-3336 돌고개지점

大山 프리모 남녀가발

광주전남 기능장 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특수가발 별매 (원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기술. 1만명 이상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H.M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광주 남구 주월동 1199-12 라인가든아파트 상가 2층(대광여고 옆)
062.673.5858 (모발모발)